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4월 29일(주일) 제1194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풍성하고
의미있는 행사가 이어진다.

기쁨 가득한 가정, 주님 사랑 넘치는 5월

가정의 달 5월 맞아 풍성하고 의미 있는 행사 이어져
5월 6일 어린이주일, 13일 어버이주일, 20일 교사주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이어진다. 선봉은 차세대사역본부가 맡는다. 차세대사역본부는 5월 6일 어린이주일을 맞아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풍성한 놀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옆 동빙고 근린공원과 수원 및 남양주 온누리교회

주차장에 놀이기구가 설치된다. 양재 온누리교회는 인형극과 간단한 체험활동을 준비하고, 도곡교육관 주차장에서는 페이스페인팅, 간식과 풍선 나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캐리커처와 먹거리, 양지는 부모와 함께하는 작은 운동회를 개최한다. 강동 온누리교

회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롯데시네마를 대관해서 가족영화를 시청한다. 어버이주일인 5월 13일에는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석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방향제를 선물하고, 수원과 평택, 강동 온누리교회도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

교사주일인 5월 20일에는 서빙고, 양재, 부천, 남양주, 인천, 강동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들에게 소정의 선물이 전달된다.

양재 열린새신자예배에서는 5월 6일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부모 초청 전도예배를 드린다. 이날 예배는 유형주 장로 초청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믿지 않는 부모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양재 화재대피훈련 5월 6일 실시

양재 온누리교회가 5월 6일(주일)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한다. 2부 예배를 드린 직후부터 3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진행된다.

화재대피훈련이 실시되는 장소는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이다. 이날 사랑홀에서 2부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예배 광고시간에 화재대피훈련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축도 후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화재대피훈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막기로 만든 연기가 발생하면 경보방송이 나온다. 경보방송을 들은 성도들은 즉시 대피장소인 지상주차장으로 질서정연하면서도 신속하게 대피한다. 성도들이 대피하는 동안 119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모의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독후감 공모전

두란노서원, 6월 20일까지 원고 접수

두란노서원에서 이재훈 담임목사의 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읽고 A4 2~3매 내외(바탕채, 글자크기 12, 줄간격 기본) 또는 200자 원고지 15~20매 내외로 독후감을 작성해서 6월 20일까지 이메일

(webmanager@duranno.com) 또는 우편(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5길 38 두란노빌딩 302호, 독후감 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원고 하단에 접수자명,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이번 독후감 공모전에서 입상하면 소정의 선물이 증정된다.

문의: webmanager@duranno.com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다음 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헌혈행사도 병행

5월 6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매주 주일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을 막아 주민들을 배려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이다.

이날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타고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증을 발부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

녀 동반, 자녀 3명 이상, 첼로 연주자 등이다. 이날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중앙대학교 헌혈센터와 함께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29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헌혈행사를 실시한다. 헌혈을 한 성도들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규정에 따라 4시간의 자원봉사 실적을 인증 받는다. 헌혈증, 소정의 상품, 다과도 제공된다.

/ 권찬송 기자

이슈진단

크리스천이 선도하는 직장문화

예수님처럼 ... 때로는 손해 보고, 남들보다 일 더하고

한 항공사 임원이 거래처 직원에게 던진 물컵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른바 ‘갑질논란’이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권력자들로부터 받아오던 갑질을 감내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사회 곳곳에서 갑질에 대한 제보와 울분과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73%가 갑질을 경험했다고 한다. 잘못된 직장문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그 키를 쥐고 있다. 크리스천이 선도하는 직장문화가 그 해답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요즘 갑질논란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될 정도로 큰 이슈다. 갑질은 비단 직장에서만 벌어지는 행위가 아니다. 일상 곳곳에 침투해 있다. 모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택배차량 진입거부를 한 사태도 갑질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값 떨어진다고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대학이 기숙사를 짓는 것을 사생결단 반대하는 집주인들의 행위도 또 다른 갑질이 아닐 수 없다.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갑)이 관리관계에서 약자인 사람(을)에게 행하는 모든 부당 행위를 뜻한다. 해외에서조차 이러한 행위를 ‘갑질(Gapji)’이라고 부를 만큼 대한민국은 갑질공화국이 됐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갑질사건을 생각해보자. 땅콩회항사건, 유제품 물량밀어내기, 군 장성의 공관병 갑질 등 해도 너무나 갑질이 만연해 있다. 미안한 말이지만 기독교인들도 갑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군 장성 공관병 갑질 사례의 주인공은 한 교회의 장로였고, 그 아내는 권사였다. 운전기사에게 갑질한 모기업 회장도 장로였다. 그들의 행위를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직장인 73%가 갑질을 경험했다는 국민인권위원회의 설문결과가 있고, 직장인

97%가 상사의 갑질을 경험했다는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설문결과도 있다. 이는 직장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크리스천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

“큰 자는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는 방법은 크리스천들이 선도하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는 복잡하기도 어렵지도 않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직장에서 드러내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선도하는 직장문화 만들기의 시작이다.

교회에서는 섬기는 성도, 직장에서는 섬김 받는 상사가 아니라 교회와 직장에서도 섬기는 크리스천이 되면 된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남들보다 일을 더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억울해하지는 말자. 그게 크리스천의 사명이자 삶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큰 자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려고 온 것이다”(막 10:45).



성경은 분명하게 낮아지는 것이 크리스천의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눅 18:14).

이 외에도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덕목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많다. 에베소서에는 갑과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종과 주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엡 6:5-7).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협박을 그치고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시며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엡 6:9).

교회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상사, 동료, 후배 직원들을 주를 대하듯 섬기는 것이 마냥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일.하.세. 아카데미에서는 직장선교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기독교 세계관, 일터에서 부딪히는 세속적 문화에 대처하기(회식, 접대, 고사 등), 유교적 수직적 상하관계 문화 극복하기(갑질 문화), 바람직한 신우회, 일터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등 직장선교의 A부터 Z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배울 수 있다. 크리스천이 선도하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직장인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은 지금 바로 서빙고 일.하.세. 아카데미에 참석하자.

서빙고 일.하.세. 아카데미(선착순)
기간: 6월 9일~ 6월 30일, 매주 토 오후 1시~6시
문의 010-4122-7255

사역칼럼



김성주 팀장
(강남A공동체)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만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일을 힘들게 시키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사실을 변질 시킵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이 밝고, 남의 노동력은 함부로 착취합니다. 그만두려니 노력이 아깝고 그냥 있으려니 앞뒤가 달라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인 ‘갑질’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갑질을 하고 있다.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드리는 GUM에 배(Get Up in the Marketplace: 일터회복예배)에서 어느 성도분이 요청한 중보기도다. 크리스천 상사 때문에 겪는 갈등이 너무 힘들어서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이다.

아주 오래전 필자가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아 환영회를 할 때였다. 부서장이 술을 권하기에 “저는 크리스천이라 술을 안 마십니다”라고 했다. 부서장은 필자의 말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은 모태신앙이라고 했다. “술 안마시고 어떻게 영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 거래처 접대는 안 할거야?”라며 막무가내로 술을 마시게 해 큰 곤욕을 치룬 적이 있다. 크리스천 상사가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게 했다.

이처럼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버젓이 음주를 권하거나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하고, 부하나

후배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인격모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카드를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하청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거래처에는 잘못된 관행의 접대를 하고, 가족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를 편취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상사 혹은 CEO들이 회사에서 드리는 예배에 전 직원들이 참석해야 한다고 강권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라

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의 지탄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다. 세상에서의 다툼은 말할 나위도 없고 교회에서의 논쟁과 분쟁까지도 세상법의 판결을 요청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가정에서만 신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일터에서, 일상에서,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정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도덕과 법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터에서도, 24시간 365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인생의 밑바닥에는 고난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깨어지는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삶에는 기쁨보다 고난이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기쁨이 넘칠 때는 성경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실제적인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 성경말씀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정면으로 맞섭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가진 환상이라는 풍선을 터뜨리는 바늘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을 잊으려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더 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독적인 행동으로 고통을 부인하거나 피하려다 더 큰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 할수록 새로운 고난을 만납니다. 새로운 고난까지 덧입게 되어 더욱 불행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더 천박해지고, 더 악마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방황하며, 더 천박해지던지 아니면 고난을 통과하며 변화를 경험하고 더 영광스럽게 달라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사랑의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고난을 멋지게 통과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5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11절).

고난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고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크고 강할수록 하나님의 개입이 크고 강할 것이고, 그에 따른 고난도 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행 14:22).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할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벧전 4:12-13).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13절).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고난을 합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가치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셨습니까?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그분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분과 구원과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

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벧전 4:1-2).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죄를 끊으시는 역사를 이루셨기에 우리도 그분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는 쉽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옛 자아에 대해 죽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은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은 유익이고, 축복이고, 감사제목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빌 3:10-11).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옛 성품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유익이 됩니다. 그 어떤 고난도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을 보면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억울해 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옛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스탈린 시대 러시아 강제노동소에서 수년 동안 수용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을 먹였으며, 그래서 나는 주저 없

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내 인생에 네가 함께 있어서 축복이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유명한 평신도 선교자로서 <천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설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12년 동안 영국의 베드포드 감옥에서 투옥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의 영혼이 활짝 꽃피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옛 성품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지, 세상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죽는지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12년 동안 스스로 감옥생활을 택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천로역정>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담은 귀한 문학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고난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고난은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둘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골 1:24).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받지 않으시고, 남겨두고, 피하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다 이루신 죽음입니다. 모든 죄를 끊어내고 승리하신 죽음입니다. 완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성인들의 공로 개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성인들이 했으니 그들을 통해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고난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고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세상에 성육신하는 존재로 존재해야 합니다.

<13면에 계속>

“당신은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미디어’와 ‘선교’의 결합 ... 퍼스널 미디어 시대의 사명 접근성 높고, 편견 쉽게 무너뜨리고, 국경 제한도 없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미디어의 영향 아래 있다.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TV, 신문,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가 현대인들의 삶 깊숙이 침투해서 인식과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긍정적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가 하면 정반대로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사고를 부추기기도 한다. 이처럼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너무나 분명하다. 따라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미디어를 선교에 접목하고 있다. 이만한 선교도구가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이것을 ‘미디어 선교’라고 하는데 그 의미와 종류, 유익 등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미디어 선교사로 살아가야하는 21세기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미디어는 인간이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다.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은 지식을 쌓고, 일을 하고, 여가를 즐긴다. 이처럼 미디어는 현대인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아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미디어를 주셨다. 선교사들은 <성경>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다. 시간이 흘러 문명이 발달하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미디어가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TV, 라디오, 신문 등으로 국한될 정도로 미디어 종류가 한정적이었지만 이 시대는 다양한 매체가 존재한다. 한 개인이 미디어가 되는 ‘퍼스널 미디어 시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양해졌다.

퍼스널 미디어는 소통이 그 중심에 있다. 개인이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 선호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방식이다. 아날로그(TV, 라디오, 신문 등)와 디지털(인터넷, SNS 등) 중에서 원하는 미디어를 직접 선택하고 이용한다. 보통 퍼스널 미디어는 개인 혹은 다수가 소통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선교에 접목하면 활용가치가 더 커진다. 미디어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파급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미디어 선교의 오늘 그리고 미래

그렇다면 이 시대에 미디어 선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를 21세기 미디어 선교라고 하는데 과거에 사용하던 미디어와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를 복합적으로 선교에 접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디어 선교의 전략이다. 사실 미디어가 선교도구로 주목받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 방법도 널리 퍼져 있다. 재미있는 것은 미디어 선교의 필요와 효과가 날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점이다. 계속 발전하고 그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미디어 선교의 필요성은 언론, 인터넷, 학회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TV, 라디오, 신문, 영화, 신앙서적,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선교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 선교는 장점이 많지만 그 유익을 요약하면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기독교인들에게 접근성이 높고,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특히 기독교 다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2017년 CGNTV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영화는 1912년 3월 조선에 파견된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재조명했는데 누적관객이 12만 3천명을 돌파했다. 상업영화가 극장을 점령하고 있는 이 시대 극장가에서 기독교 영화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 그만큼 이 영화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물했다는 증거이다.

둘째, 미디어는 국경 제한이 없다. 비자 발급이 어렵거나 입국이 어려운 나라에서도 미디어 선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 영화, 라디오 프로그램 등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미디어를 통해서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탈북을 결심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탈북민 79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탈북자들에게 ‘탈북 전에 남한 문화 접촉 경험 유무’를 물었는데 설문조사 참여자 91.5%가 ‘있다’고 답했다.

물론 미디어 선교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디어 선교를 위하여 만든 콘텐츠가 비기독교적인 것을 지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변형된 기독교 콘텐츠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디어가 건강한 선교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자극적이고 세속적인 콘텐츠에 접근하는 이용자들이 많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작한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보급하고, 이용자들의 영성관리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미디어 선교 종류와 그 역할

이미지나 동영상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래서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다. 이미지와 동영상을 활용한 대표적인 미디어 선교도구는 ‘TV’이다. TV는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중 하나이다. TV를 이용한 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는 CGNTV다. CGNTV는 기독교방송국이다. 2005년 개국한 CGNTV는 인터넷 방송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4시간 동안 전 세계로 복음을 송출하고 있다.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팟캐스트에도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웹 드라마를 제작해서 젊은 세대와 복음으로 소통하는 맞춤형 콘텐츠도 활발하게 제작하고 있다. 전파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무료로 설치하는 일도 하고 있다.

‘교회 홈페이지’도 이미지를 활용한 미디어 선교도구다.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있어도 교회 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다. 낯설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교회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홈페이지다. 홈페이지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편리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서선교’도 미디어 선교도구다. 문서선교는 영상 선교와 달리 전달이 쉽고, 시간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심방이나 노방전도를 할 때 전도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영상 미디어 시대에도 문서선교는 여전히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온누리교회에서도 다양한 문서선교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온누리신문이다. 온누리신문은 1994년 4월 3일 창간되었다. 수많은 복음 메시지와 하나님의 역사를 활자를 통해 성도들과 나누고 있다. 온누리신문은 총 16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물, 기획, 교회 사역, 공동체, 말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출판’도 미디어 선교도구다. 두란노서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출판사다. 수많은 신앙서적과 기독교 잡지가 두란노서원에서 출판되고 있다. 매월 발간되는 큐티책 <생명의 삶>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출간되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월간지 <빛과 소금>은 매월 발간되고 있다. <빛과 소금>은 1985년 4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창간했다.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크리스천 영성,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묵회 전문 월간지 <묵회와 신학>도 발간하고 있다. 신학 이론과 묵회 현장을 연결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방향과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선교도구

21세기 계속되는 미디어의 발전은 현대인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가져 올 것이다. 더 이상 미디어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제는 개인 미디어를 통해 생각과 의견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은 미디어를 선교도구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미디어 선교는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 않아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나 선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선교도구이다.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미디어에 복음을 실어 나를 수도 있다.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고 개발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외에도 나만의 전도지를 만들거나 개인 SNS를 활용해서 말씀, 찬양, 간증을 공유할 수도 있다. 복음광고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1인 방송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서적을 추천하거나 교회 주보와 신문을 나눠주는 것도 미디어 선교다.

미디어 선교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 선교의 필요성과 유익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삶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미디어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을 미디어 선교사로 살게 해줄 것이다.

전문가 기고

미디어 선교의 핵심 ‘거룩함’



이상호 안수집사
(OCC공동체, SBS '생활의 달인' 프로듀서)

나는 1992년 SBS에 입사했다. 당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내 주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다. 세상문화가 너무 좋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께서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가망 없으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형님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주실 거라고 말했다. 나는 형님이 살아계시는 3개월 동안만 교회에 다니기로 했다. 새벽기도도 가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형님은 기적같이 다시 살아났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셨다.

그 뒤로 내가 속해있는 SBS와 모든 촬영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선교지라는 걸 깨달았다. 미디어 사역자로서 기쁨 따듯해지고 사랑이 묻어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SBS 기독교인우회’ 회장을 맡으면서 훌륭한 기독교 콘텐츠를 담은 미디어들이 만들어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다.

나는 예스더 4장 13~14절 때문에 미디어 사역을 시작했다.

“모르드개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네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으니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에 4:13~15).

나는 내 가족들만 미디어의 안 좋은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SBS로 보내신 이유는 미디어 사역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미디어 선교란 무엇인가?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다. 미디어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미디어를 가지고 선교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없다. 미디어가 주는 부정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디어 중독이다. 그 대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세련되고 멋진 것처럼 다가와 속삭인다.
그것과 타협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

표적인 것이 핸드폰이다. 마약이나 약물 중독은 특정 소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반면 핸드폰 중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 있다. 정글에 사는 원주민의 목에도 핸드폰이 걸려 있을 정도다.

우리는 핸드폰이 없으면 매우 큰 불편함을 느낀다. 하지만 핸드폰 사용이 주는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해보지 않는다. 장시간 핸드폰 사용은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잠자기 전 핸드폰 사용은 잠드는 시간을 길게 하고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어두운 곳에서 동영상 보게 되면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망막을 손상시킨다. 또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뇌종양 발병률을 높인다.

게임중독도 심각한 문제다.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은 게임에서 지면 게임을 다시 시작하듯이 자신의 인생도 리셋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리셋중독’에 빠져있다. 또 많은 청소년들이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서 음란물을 쉽게 접하고 있다.

우리는 미디어 사용을 완전히 멈출 순 없지만 미디어가 주는 안 좋은 영향력을 잘 분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미디어 선교는 미디어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중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다. 미디어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작은 솔루션이 있다. 각 가정마다 미디어 박스를 만들어 거실에 두는 것이다. 낮에는 우리 몸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있지만 큰 움직임이 없는 수면 상태에서는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부

모님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최소한 잠자는 동안만이라도 미디어 박스 안에 핸드폰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 선교의 과제

과거에는 세상의 문화를 기독교가 선도해 갔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문화가 힘을 잃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기독교 문화가 많지 않다. 기도하면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음송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CCM아이돌 가수들도 만들어져 미디어를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 선한 메시지를 들려 줬으면 좋겠다.

죄책감 없이 많은 사람을 살린 사형수가 자신이 청소년 시절 허무주의와 공산주의 책을 많이 읽어서 세계 최고의 ‘싸이코패스’가 됐다고 고백했다. 청소년 시기에 어떤 미디어를 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헌신된 미디어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기독교 문화를 담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회사를 만들어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차세대 미디어인들이 잘 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작가, 작곡가 등 창작 활동을 하는 사역자들과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미디어사업 운영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해 한국 드라마와 가요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복음의 메시지를 한류에 심으면 좋은 선교도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리옹에서 프랑스 현지

인 여자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인 2세들을 모아놓고 한국인의 날을 만들어 공연을 했다. 가수가 아닌 그냥 일반인의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500명이나 모였다. 하나님이 한류를 일으키신 이유가 있다. 우리 민족을 열방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다.

미디어 선교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미디어 선교사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건전한 콘텐츠를 만들 수 없다. 시청자 입장에서 건전한 콘텐츠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극적인 영상이 나오면 과감하게 채널을 넘길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세련되고 멋진 것처럼 다가와 속삭인다. 하지만 그것과 타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보시면 기뻐하실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

경건의 삶은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SBS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을 사전 시사를 하다 보면 수많은 달인들을 만난다. 그들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일한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그들을 달인으로 만드는 숙성과 발효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된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인으로 만드는 훈련의 기간이다. 숙성과 발효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

온 누리에서 만난 온누리

“온누리에서 배운 노하우와 선교정신으로”

육군항공학교 창공교회 최광수 목사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 말에 온누리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다.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노하우와 선교정신이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만한 자산이 없다며 무척 고마워한다. 본지에서는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와 선교정신을 바탕으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육군항공학교 창공교회 최광수 목사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군선교, 청년전도를 위해 한 몸 바친 최광수 목사.

군대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지역이 논산이다. 바로 그 논산에서 군복음화와 청년전도를 위하여 목숨 바친 이가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도 익숙한 얼굴이다. 주인공은 서글서글한 인상과 짙은 눈썹이 인상적인 최광수 목사다. 최 목사는 현재 육군항공학교 창공교회를 섬기고 있다.

“안녕하세요 최광수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지금 저는 최광수 대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군종장교로 헌신해서 육군항공학교 창공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최광수 목사는 온누리교회 차세대를 섬겼었다. 당시에는 전도사였기에 최광수 전도사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다. 최 목사는 신학대학원 입학 후 2006년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해외비전교회, 국내 캠퍼스를 두루 섬겼다. 온누리교회와의 인연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대련 온누리교회에서 행정과 차세대를 섬겼다.

“기독교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대련 온누리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대련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던 경험이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차세대 ‘꿈이자라는땅’ 영역을 섬겼다.

“해외 비전교회와 국내 캠퍼스를 섬기면서 온누리교회를 다양하게 알고 경험했어요. 같은 온누리교회지만 서로 다른 특성이 있거든

요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참 좋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많이 배우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차세대 소년 1부와 파워키즈를 섬겼다.

“그때는 행사 스태프로 섬겼던 일이 기억나요. 저는 주로 FD역할을 했거든요. 그 덕분에 다양한 강의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벌써 청년들이 되었고요. 어느 날 젊은 여성분이 페이스북에서 친구신청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양육했던 차세대대더라고요.”

군종장교의 길을 걷다

온누리교회를 4년 동안 섬긴 최광수 목사는 군종장교로 헌신했다. 군종장교는 군대에서 종교생활을 담당하는 보직이다. 학부생 1학년 때 신청해서 학부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후보생 교육을 받는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목사안수를 받고 정식으로 임관하게 된다. 최 목사가 군종장교가 된 이유는 군대가 청년전도의 황금어장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여전히 청년전도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말대로 지난 8년 동안 최 목사가 만난 군 장병들이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 그 많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

“군종장교들은 1~2년 사이에 부대를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최전방에 가기도 하고 지금처럼 후방에 있기도 합니다. 강원도 춘천 102보충대에서도 사역을 했는데 그때 10만 명이 넘는 군 장병들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군대만큼 청년전도하기 좋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최 목사가 소속된 부대는 육군항공학교다. 육군항공학교는 육군에서 헬기를 조종하고, 정비하는 장교, 부사관, 병사들을 양성하는 곳이다. 육군의 모든 항공관련 보직은 육군항공학교를 거쳐야 받을 수 있고, 이곳에서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선교로 치면 선교베이스캠프다.

“부대마다 특징이 있는데 육군항공학교 창공교회는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과 장교들이 훈련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각자 부대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전방부대 교회에서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는 거죠.”

한 기수에 18명씩 30주 동안 연간 6~7기수가 육군항공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다. 창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훈련생 중에서 40%가 초신자일만큼 전도율이 높다. 전도비법은 최 목사가 인도하는 수요예배다. 최 목사는 수요예배를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로 특화시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주말이면 훈련생들이 모두 외박을 나가요. 수요일에는 다들 부대에 있으니가 수요예배를 특화시켰어요.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모임

을 진행하면서 양육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소그룹모임을 인도하는 성도들이 훈련생들의 교관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탁월해요.”

훈련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자대교회까지 연결하는 것이 최 목사의 사명이자 역할이다.

“꾸준한 관심이 가장 큰 힘입니다”

육군항공학교 창공교회가 효과적으로 군선교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양육이다. 꾸준하게 출석하는 간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와 양육의 순환이 가능하다. 다른 군교회들도 창공교회처럼 이 과정이 원활하면 좋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많은 군교회들이 장병들에 대한 양육을 시작할 여력조차 없다. 부대마다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군교회 시스템이 대부분 비슷하다. 군종장교나 민간군목이 있고, 군종병이 있다. 목회자가 군종병을 양육하면 군종병이 주축이 되어서 병사들을 전도하고 양육한다. 그래서 군종병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목회자가 신병을 받아서 양육하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군종병이 상병이나 병장쯤 되어야 군교회 스스로 운영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동역자들의 지원이다. 보통 군교회들이 이게 부족하다. 부대 내 간부들의 지원과 민간교회의 지원 둘다 중요한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민간교회의 꾸준한 섬김이다.

“아웃리치는 군교회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부대에 아웃리치를 와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일회성 위문방문도 좋지만 군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꾸준한 방문이에요.”

한 교회가 군교회를 선정(결연)해서 매주 꾸준히 방문하고, 양육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 목사가 이야기하는 가장 효과적인 군선교 방법이다. 몇몇 교회에서 군교회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섬김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정말 탁월하다고 한다.

“지금은 예전처럼 햄버거 가지고 와서 교회에 오라고 하면 장병들이 별 때처럼 모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꾸준한 관심과 사랑만이 장병들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군복음화, 청년전도를 위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꾸준히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배운 노하우와 선교정신으로 무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온누리 군선교팀(010-3787-1958)



황숙희 권사의 백수(白壽)로
이어진 삶과 신앙의 지혜서 5



영원하신 하나님, 무상한 인생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시편 기자가 “세월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세월은 빨리 간다.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이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주의 인자로 만족하며, 즐거운 생활을 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나라, 죄나 사망이 더럽히지 못하는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 가는 길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또한 새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사 55:6~7).

우리를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셨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은혜로운 선물이다.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전 15:43~44).

주 안에서 긍정적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기쁨으로 열매를 맺어 단을 거두고, 확고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은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 인간의 소망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이,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에 대한 소망과 꿈이 확인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받아낼 때 우리는 죄와 고통과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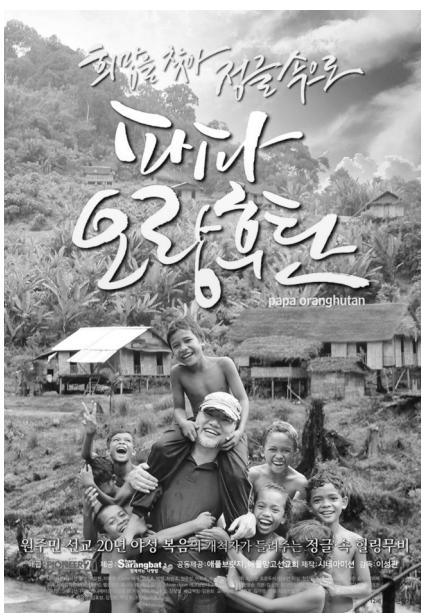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의 고통과 죄를 흰 눈같이 씻겨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욱 큰 능력으로 사탄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일 5:4~5).

이사야는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넘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어질 영광의 세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험과 절망 속에서도 굳세게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과 기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처럼 찬란한 끝 날이 우리에게 놓여 있음을 보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다.

볼만한 다큐영화 ‘파파 오랑후탄’



“박철현 선교사는 대장암 말기 시한부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는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다시 정글로 향했다.”

한국 교회에 또 한 번 선교 열정을 불어넣어 줄 한편의 다큐영화가 개봉했다. 바로 ‘파파 오랑후탄’이다. 영화 파파 오랑후탄은

시한부 선교사가 다시 정글에 간 이유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의 눈물 나는 선교 열정

20년 동안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철현 선교사의 이야기를 그렸다. 박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선교사가 가져야 할 선교자적 사명과 영혼 구원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박 선교사는 체감온도가 무려 50도를 웃도는 뜨거운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박 선교사의 그 뜨거운 선교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다. 진한 감동은 덤이다.

원주민들은 박철현 선교사를 ‘오랑후탄’이라고 부른다. ‘오랑’은 말레이시아어로 사 람이고, ‘후탄’은 정글이다. 박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정글의 사람’이라고 불린다. 박 선교사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 매우 안정적인 목회를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악습과 우상숭배에 빠

져 있는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이후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무작정 말레이시아 정글로 왔다.

정글을 8시간 정도 걸으면 ‘우루 감 바’ 마을이 나온다. 그곳에는 식인종의 후예 ‘까심’이 살고 있다. 그는 늘 술과 마약에 취해 있고, 사사건건 박철현 선교사의 행동을 주시하며 사역을 방해한다. 계속되는 까심의 방해에도 박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이 영화에는 소년 ‘지부’도 등장한다. 지부는 박 선교사를 따라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부는 그곳에서 ‘거머리 전도왕’이라고 불린다. 그들이 하나 되어 써 내려가고 있는 선교 역사가 이 한편의 영화에 녹아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다.

다큐영화 ‘파파 오랑후탄’에는 박철현 선교사, 그의 아내 이해영 선교사, 박철현 선교사와 이해영 선교사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배우 염광호와 박영, 식인종의 후예 까심, 거머리 전도왕 지부가 출연한다. 내레이션은 배우 정윤선이 했다.

다큐영화 ‘파파 오랑후탄’은 필름포럼(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527 하늬솔빌딩 A동 지하1층)에서 볼 수 있다.

다큐영화 ‘파파 오랑후탄’의 배급사인 ‘파이오니아 21’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잊혀진 가방’, ‘나의 선택 잊혀진 가방 그 못다 한 이야기’, ‘중독’, ‘제자 육한흠’, ‘순교’, ‘제자도’, ‘광인 육한흠’ 등 수많은 기독교 영화와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문의: 070-7886-3691

특별기고 유신진화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5

첫 번째 남자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도전들



이은일 장로
(한국창조과학회
고려대 의대 교수)

세상은 '진화'라는 용어를 '좋은 변화, 멋진 발전'의 뜻으로 많이 사용한다. 또한 사람의 심리와 사회의 변화까지도 진화론으로 그럴듯하게 해석한다. 모든 긍정적 변화 뿐 아니라 인간의 악함까지도 진화로 설명하는 진화론은 세상 과학의 기준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기준으로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인정받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진화론을 수용하면 성경의 역사성을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창세기의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은 어떻게 출현했는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시작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는 고대 기록이나 기괴해야 여러 종교 서적 중 하나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진화되었는가?

유신진화론이 수용하는 진화론은 가능하지 않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생명체의 설계도가 물질의 우연한 결합으로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다. 최근에는 자기조립(self-assembly)에 의해 물질들이 패턴을 만드는 나노과학이 발전하면서 진화가 이러한 방식으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조립은 화학반응에 불과한 것이며,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명체는 단순히 물질의 조합이 아니라, 그러한 물질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엄청난 정보시스템이 함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화론자들은 물질이 정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불가능한 일이 이뤄졌다고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명체의 설계도가 돌연변이에 의해 다른 생명체의 설계도로 진화한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에 의해 다른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초월적인 창조에 의해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진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평균 키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300년 동안 인간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표현한



피터 벤젤(Peter Wenzel)이 그린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

다.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평균 키가 성장한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이것을 진화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라는 용어를 들을 때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진화를 뜻하는 것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진화되었다는 주장을 들으면 진정한 의미의 진화를 주장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첫 번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인류의 조상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배운다. 멸종한 원숭이 뼈에 불과한 화석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화론만이 인류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진화론은 사람이 고대 영양류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약 40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약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직립원인, 약 10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약 10만 년 전), 현생인류(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약 4만 년 전)로 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적절한 뼈를 진화론적 상상력으로 이어 붙인 것일 뿐 실제 화석들은 그런 순서를 보여주지 않는다. 2013년 조지아 드마니사에서 발굴된 5개의 두개골은 호모 에렉투스,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하빌리스 등으로 함께 존재했으며, 2015년 중국에서는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렉투스 가 1만4천 년 전에도 살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진화론적 연대기는 하지만 70만~100만 년 전 이미 불을 사용했고, 50만 년 전 장애아를 돌본 증거가 있으며, 8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는 요리 공간과 잠자는 공간을 나누어 살았다. 5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는 조개껍질에 기하학적 무늬를 남겼으며, 30만 년 전 독일 석탄층에서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8자루의 창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13만 년 전에 이미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등으로 문명을 차츰 이뤘다는 것도 진화론적 상상력이다. 성경은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처음부터 농사를 지었고, 가인의 후예들은 상당한 과학 기술을 발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문명은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지적 기술과 문명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지금도 어떤 곳은 밭당 숲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나무를 피워 음식을 하고 있듯이 지역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문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네안데르탈인도 미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초기 유럽인의 유전체 8~11%가 네안데르탈인의 DNA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현대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은 함께 살았던 것이다. 생명체들을 보면 원숭이든 원숭이고 사람이든 사람이든, 중간 단계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그런 화석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진화론에 맞춰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고장 난 시계로 시간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어려서 일이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지게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아담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나?

성경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처음 창조한 세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

님의 초월적 창조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모든 인류가 나왔고, 그 첫 번째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하와라고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다(창 1:26-27, 2:19, 3: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인지에 대한 질문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남자와 단 한 명의 여자만이 존재했던 세계 자체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한 쌍의 부부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면 형제자매 사이에 결혼이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를 매우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근친결혼이 아니다. 아담 가족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른 가족들이 없는 세상에서는 근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하나님께서 근친 간 성적 관계를 금지하신 것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율란한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한 가족밖에 없던 아담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것이다(레 18:3-18).

아담은 단지 많은 사람들의 대표일 뿐 첫 번째 남자는 아니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창 4:14)"라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후에 만날 자신의 동생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가인의 살인사건 이후 아담 가족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 가족과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의 가족으로 나뉘게 된다. 따라서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로 이뤄질 것이고, 훗날 가인이 곁에서 낳은 사람을 만났다면 분명 자신이 죽인 아벨 이후 태어난 셋의 후손일 것이다. 따라서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셋의 후손들을 만날 것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

아담이 첫 번째 남자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담이 첫 번째 남자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은 첫 남자 아담의 초월적 창조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킬 수 있다. 아담이 당 시대 많은 남자들의 대표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남자들을 한꺼번에 초월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인가? 아담이 많은 남자들 중에 한 명이라면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전 인류의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범죄하지 않는 다른 남자들이 왜 범죄자 아담 때문에 같이 죽어야 하는가?

성경의 기록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집단으로 있었다기보다는 한 쌍의 부부로부터 시작했다고 해석해야 일관성이 있다. 첫 번째 여자의 이름 '하와'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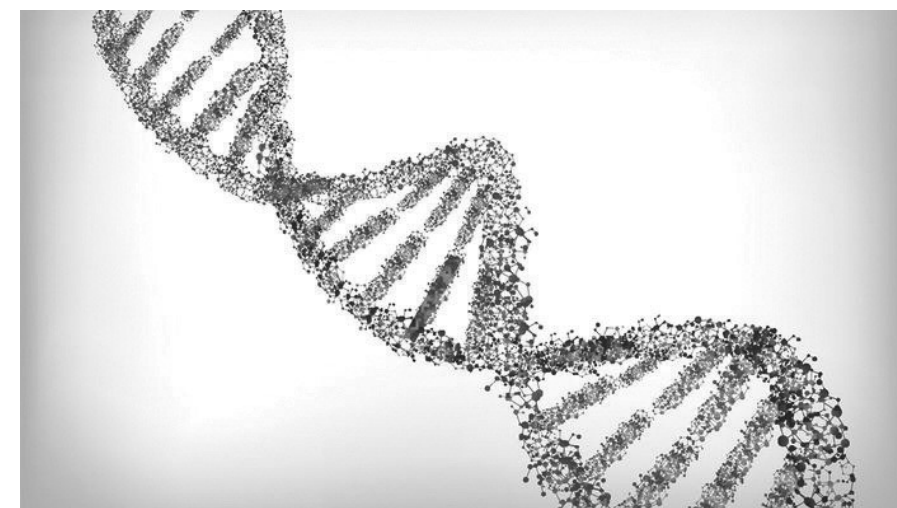
이다(창 3:20). 바울은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행 17:26). 또한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을 얻으리라(고전 15:21-22)"는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대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쌍의 부부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는 것은 성경적이면서 동시에 과학적이다. 피부 색이나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후손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1987년 하와이대학의 칸 교수 등은 미국, 아프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 뉴기니와 호주의 원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라의 147명 여성들의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한 결과 이들이 모두 한 여성의 후손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Nature)지에 발표하였다. 이후 아리조나대학의 햄머 교수는 남성의 Y염색체를 조사하여 모든 인류의 남성들도 한 남성의 후손일 것이라는 결과를 1995년(Nature)지에 발표하였다.

어떤 과학적 연구결과도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처음 창조된 한 쌍의 부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과학도 한 쌍의 부부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모든 사람들의 부모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한 쌍의 부부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첫 번째 남자 아담의 초월적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어떻게 한 쌍의 부부로부터 다양한 인종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남자 아담이 흑인이었는지, 백인이었는지, 황색인종이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아담의 키는 몇 cm일까, 아담은 음악을 좋아했을까? 미술을 좋아했을까?" 하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피부색이나 인종은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성 중 하나일 뿐 유전적으로 구분되는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부부가 흑인과 백인 자녀들을 출생시키기도 한다. 실제 영국의 한 부부는 흑인과 백인 쌍둥이를 낳기도 했다. 우리들은 피부색에 대한 선입관으로 다른 인종은 서로 매우 다른 사람처럼 느끼지만 유전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나와 다른 한국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의 유전자를 서로 비교하면 나와 다른 한국 사람보다 나와 아프리카 사람이 더 가까울 수도 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미래에 일어날 실제 역사이다. 오직 성경만이 진정한 인류의 시작과 끝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다양한 인종(피부색)이 태양 빛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태양 빛이 강한 아프리카 지역 등지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진 결과 흑인이 등장하였고, 이후 태양 빛이 약한 곳에서는 검은 피부가 햇빛을 차단해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흰색 피부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태양 빛에 탄 피부가 자손들에게 유전된다는 주장은 정말 황당하다. 또한 검은 피부색이 태양빛을 막아 비타민 D 합성을 방해한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2014년에 이미 밝혀졌다.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종류' 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류 내에서 다양해지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도 다양해지도록 창조하셨다. 사실 다윈의 진화론의 출발점이 된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다윈이 관찰한 것은 진화가 아니라 생명체의 다양성이었다. 누가 봐도 생명체의 특성들은 종류대로 구분되어 있다. 종류에 대한 유전적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유전자 설계도의 결과인 개체들을 관찰만 해도 종류에 따른 구분과 그 종류 내에서의 다양성이 잘 관찰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체가 종류 내에서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일까?

종류 내에서 생명체들이 다양해질 수 있는 것과 사람이 다양해지는 것은 같은 원리이다.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 유전적 조합을 통해 다양해진다.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23개는 아버지로 부터 23개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버지의 23쌍의 염색체에서 23개가 선택되는 가

능성은 223(=8,388,608)이고, 어머니도 동일한 경우의 수를 갖게 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염색체가 조합되는 모든 경우의 수는 70조3천 6백8십7억이 넘는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23쌍의 염색체는 자체적으로 재조합(cross over)되어 유전정보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쌍의 부모로부터 거의 무한대의 염색체 조합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이 세상 사람이 이처럼 많은데 어떻게 한 부부로부터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또한 무한대에 가까운 유전자 조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계획대로 유전정보를 설계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둘째, 돌연변이 때문에 다양해진다. 돌연변이에 의한 변화는 유전되기 때문에 돌연변이의 영향은 자손들을 통해 계속 될 수 있다. 돌연변이로 인해 유전변이 생기기도 하지만 멜라닌 색소 감소로 인해 금발처럼 더 좋아 보이는 모습도 생길 수 있다. 아무래도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큰 키, 금발 등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빨리 결혼하고 자손을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큰 키 사람이 많다는 현상을 자연선택의 결과라고 부르는데 전혀 잘못된 용어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결코 자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려견들도 돌연변이 때문에 나온 것이 많다. 이러한 강아지들은 작고 예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높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다. 그러나 돌연변이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만큼 약하고 아프고 강아지들이 많이 죽고 있다.

세 번째 원리는 조금 어려운 과학 용어인데 후생유전학적 변화 때문에 다양해진다. 후생유전학적 변화라는 것은 유전자 설계도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환경(먹는 것 포함)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야생 닭을 가축화해서 키운 결과 색깔 등이 달라졌지만 유전자의 변화는 없었다. 또한 다윈이 관찰하였던 먹는 음식물에 따라 핀치새의 부리가 달라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진화론자들은 후생유전학적 변화도 진화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결국 진정한 의미의 진화는 없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즉, 생명체의 다양성은 유전정보 설계도의 변화가 없는 유전적 조합 또는 후생유전학적 변화와 일부 설계도의 손상을 가져오는 돌연변이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진화로 설명하는 것은 역지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만이 역사의 열쇠이다

모든 인류가 한 쌍의 부부로부터 나왔다면 어떻게 한 언어에서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다른 언어에서 존재할 수 있나? 생명과학과 성경은 한 쌍의 부부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언어학은 한 언어로부터 모든 언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뿐이다. 생명과학 연구결과와는 한 쌍의 부부를 지지하고, 언어학적으로는 한 언어로부터 다양한 언어가 나올 수 없는 과학적인 난제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로 통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이 함께 살았을 때는 훨씬 다양한 피부색과 골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흩어진 이후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피부색이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피부색은 다수의 피부색이 더욱 우위를 점하게 되고, 지금처럼 지역마다 특정 피부색이 대다수가 된 것이다. 성경은 인류의 처음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과학적 모순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초월적으로 창조된 아담이 타락하여 죽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실제 사건임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을 단번에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실제로 될 수 있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미래에 일어날 실제 역사인 것이다. 오직 성경만이 진정한 인류의 시작과 끝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성경을 믿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다.



권사, 안수집사 임직 기준 변경

최소이수학점 조정, 순장 및 교사 경력에 학점 부여

온누리교회 권사, 안수집사 임직 기준이 변경된다. 종래 온누리교회 권사집사후보선발시행규칙에 의하면 임직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이 2018년에는 12학점, 2019년 이후에는 14학점이었지만 2019년 이후에도 12학점으로 유지된다.

또한 순장과 교사 경력에 학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공동체 순장으로 섬긴 기간 매 1년마다 자유선택과목 이수로 인한 1학점씩을 주어 최대 5학점(5년)까지 인정한다. 차세대 교사로 섬긴 기간이 만 2년이 되면 자유선택과목 이수로 인한 1학점을 주며 그 후에는 1년에 1학점씩 주어 최대 5학점(6년)까지

인정한다. 순장과 교사를 동시에 섬긴 경우에는 각 취득학점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할 수 있으나 합산된 총학점은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순장 및 교사 경력은 아이케어(iCare)나 엔케어(nCare) 상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변경된 권사, 안수집사 임직 기준은 2018. 4. 14. 당회에서 의결되어 2018년 임직대상자들부터 적용, 시행되지만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순장 또는 교사로 섬긴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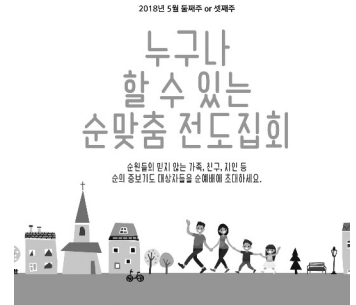
순맞춤전도집회 준비 한창

5월 둘째 주부터 순별로 실시

순맞춤전도집회 준비가 한창이다. 순맞춤전도집회는 순원들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순모임에 초청해서 교제하고 전도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순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순맞춤전도집회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순에서 전도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전도대상자들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한 다음 전도대상자들이 순맞춤전도집회에 참석하도록 순원들과 합심해서 중보기도를 한다. 전도대상자가 순맞춤전도집회에 참석하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한다.

한편, 5월 15일에는 전도사역본부와 오산고등학교 기독교문화가 함께 '111 Anniversary 드림콘서트'



를 개최한다. 오산고등학교 개교기념일을 맞아 오산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된다. 학업에 지친 오산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응원하는 콘서트다. 이날 콘서트 게스트로는 마리오네트 비보이와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걸그룹 베이비부가 출연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 모집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행정업무 담당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를 모집한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12월 31일까지 행정업무를 수행할 성도를 찾고 있다. 자격은 엑셀을 사용할 수 있는 보건학 전공자, 영양학 전공자, 영어회화 가능자를 우대한다. 신청방법은 NGO 더멋진세상 홈

페이지에서 '2018년 해외사역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로 5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2271-2246

www.abetterworld.or.kr

gail@abetterworld.or.kr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5월 12일 도곡교육관 온유홀 17시30분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된다.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에서는 개인의 직업과 특성을 활용한 실제적인 선교 방법을 배운다. 7월

이나 8월 중에는 해외 실습 프로그램도 계획되어 있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훈련비용은 25만 원이다. 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 010-8932-9901

양재 010-3347-0691

/ 권찬송 기자

양재 상담실 음악치료 참가자 모집

양재 온누리교회 상담실에서 악기와 음악을 이용해 불안, 우울감, 스트레스를 다루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상담 프로그램 '오르프 음악치료를 통한 마음의 쉽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5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양재 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 악기를 다루지 못하거나 악보를 읽지 못해도 참여할 수 있다. 악기와 재료는 상담실에서 지원한다. 회비 7만 원.

문의: 02-570-7536

CMN 해외 아웃리치 팀원 모집

CMN 의료사역팀에서 해외 아웃리치 팀원을 모집한다. CMN 마노아팀은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인도네시아 람퐁에서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비는 110만 원이다. 6월 6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CMN드림팀도 의료 및 교육봉사자를 찾고 있다. 드림팀은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스리랑카 험튼에서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있다. 회비는 165만 원이다.

문의: 02-3215-3786

두란노바이블칼리지 5월 프로그램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풍성한 5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선봉은 '시가서·선지서 Big Picture'가 맡는다. 이 강의는 시가서(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선지서(대선지서 4권, 소선지서 12권)의 큰 흐름과 핵심주제를 배울 수 있는 세미나다. 5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도곡교육관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김성진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구약학)가 한다. 회비 34만원. 문

의: 02-2078-3266

영성훈련의 실제와 실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독교 영성훈련 이야기' 세미나도 열린다. 한국 교회 현실에 맞는 기독교 영성 훈련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거룩한 읽기 & 영적 일기', '그리스도의 생애묵상 & 의식성찰', '금식 & 영적분별' 등을 주제로 권혁일 교수(한일장신대), 김경은 교수(장신대), 이경희 목사(소망교회) 등이 강의한다. 회비 15만원. 문의: 02-2078-3264

4월 세례자

■서빙고	오형석 박인진	도곡교육관	여호수아
김경희 720805	유도현 170311	유아	고은서 940221
이한행 560827	유찬호 박지혜	고하민 160604	양승연 900215
유아	윤채원 170616	고영민 문선영	장하영 880818
김주은 160511	윤석민 고은영	고하연 160604	조영화 870407
김광현 고선영	이세희 160609	고영민 문선영	입교
변승아 170214	이상욱 강은영		박법민 880405
변상호 배현경	이하울 160417	특별한초대	
변은하 170502	이정우 이은별	홍종철 861201	허브
변대섭 박주영	임이나 171219	입교	입교
송한담 170701	임경현 신정은	이동천 930211	김우정 950414
송성훈 장원복	채시안 170410		조용철 970916
송한설 160402	채성민 강지윤	■대학청년부	
송성훈 장원복	최시은 160331	갈렙	J4U
양세린 170131	최윤성 김정현	유아	김은수 890517
양현준 정태은		권율 170201	입교
오은찬 160526	■양재	권상수 배선나	정현아 921117



샷포로 기·도·제·목

- 4월 30일(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러브소나타가 되도록
- 5월 1일(화) 이재훈 목사님과 모든 강사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 5월 2일(수) 러브소나타를 통해 샷포로 지역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 5월 3일(목)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 5월 4일(금)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도록
- 5월 5일(토) 집회를 위한 최고의 날씨와 환경을 주시기를
- 5월 6일(주일) 집회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무너지도록

■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간증



/ 권지영 성도(가정사역공동체)

사랑하는 딸과 함께

나는 열한 살짜리 쌍둥이 두 딸을 둔 엄마다. 나에게 자녀를 제자 삼는다는 것은 부모로서 가져야 할 최우선 사명으로 느껴졌다. ‘3040 일대일 양육자반’을 끝내고 바로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2주 과정을 거치면서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냈다. 딸 둘을 키우면서 자녀와 개별적으로 시간을 가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런데 어린이 일대일 과정을 시작하면서 12주 동안 한 아이와 매번 1시간 반 동안 둘만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OT를 하던 첫날 단 둘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릴 때 가장 즐거운 때는 언제였는지,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이며,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딸과 눈을 마주치며 속이야기를 하니 너무 행복했다. 앞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한 다음 지켜야 할 약속에 서명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다. 기도가 끝난 후에 하임이는 내 옆으로 다가와 입술과 볼에 몇 번이고 뽀뽀를 했다. 그간 속에 담아 둔 이야기를 엄마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나는 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배우고, 성경과 큐티, 기도, 교제, 전도를 삶에 적용했다. 소중한 자녀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전도에 대한 활동이었다. 전도에 어려움이 있는 하임이를 위해 기도했다. 딸로 격려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줬다. 다음 날 하임이는 내게 배운 전도방법을 잘 적용해서 같은 반 친구를 전도했다. 둘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운 시간이다. 아홉 가지 종류의 과일과 야채를 먹기 좋게 썰어 요거트에 버무린 샐러드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먹었다. 하임이는 스스로 각 과일이 어떤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지 해석하며 먹었다. 셋째, 세족식이다. 하임이의 작은 발을 물에 담그고 닦아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다. 12주 동안 필요한 모든 지혜를 부어주시고, 서로의 연합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유아세례 간증



/ 구자경 성도(양지 온누리교회)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

나는 2011년, 42세라는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한지 1달 만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가장 슬픈 경험을 했다. 그제 끝이 아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면서 신앙마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 주시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은 것은 아닐까?’ 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2014년, 아내는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입양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들 분하를 가슴으로 낳았다. 분하를 가슴으로 낳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한 생명이 우리 부부에게 주는 행복지수는 엄청났다. 분하의 첫 돌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때 도육한 목사님께서 둘째 입양을 권하셨다. 우리 부부는 당황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둘째 딸 본서를 가슴으로 낳았다. 아들 분하와 딸 본서 덕분에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마음의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아들 분하와 딸 본서가 성별이

달라 커가면서 따로 놀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다. 큰아들 분하에게 남자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부부는 셋째 아이를 남자아이로 입양하고 싶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 부부의 뜻을 기뻐하신다고 믿고 셋째 본유를 가슴으로 낳았다. 아이 셋이 한꺼번에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고 기침하고 콧물을 흘리면 가슴이 떨려버린다. 하지만 본유만 먹던 아이가 어느새 이유식을 먹고, 누워만 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앉아 있나 싶더니 기어 다니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 이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큰아들 분하가 셋째 본유에게 매일 뽀뽀해주다가도 때리고 못살게 굴기도 하지만 동생을 아끼고 사랑한다. 멋진 형제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셋째 본유는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다. 생후 264일째 되는 오늘 본유는 곧 걸을 것처럼 기뻐할 것만 있으면 잡고 일어서서 버티기를 한다. 기도하면서 얻은 본유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한다. 본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 수 있도록 잘 양육할 것이다. 본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 하나원사역팀 간증



/ 유주석 팀장(하나원사역팀)

현재진행형 ‘통일민(民)’

나는 6년 전 하나원을 처음 방문했다. 그동안 하나원을 방문해서 수많은 탈북민들을 만났다. 지금도 탈북민들을 만나러 가는 날 아침이면 어린이처럼 설레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내가 하나원 팀장이 됐을 때 하나원을 방문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중보기도가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셨다. 2년 전 하나원사역팀 담당목사님의 격려와 배려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참석자 60% 정도가 북한에서 온 지체들이다. 아직 모임 이름이 없어서 ‘수요남북친구모임’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지만 이 모임에 참여하는 남과 북의 지체들이 북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

하나원사역은 하나원 방문사역, 탈북민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케어사역, 예배와 나눔,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 북을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는 그 사역을 ‘통일사역’이라고 한다. 친구관계가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이 동등성과 친밀성이다. 수요남

북친구모임의 모토 중 하나가 탈북민들을 사역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모두가 동등한 친구로 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동등하고 친밀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가진 남한 사람들의 겸손과 인내가 필수적이다. 또한 오래 참아줘야 한다. 변할 듯 변하지 않는 그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 사역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많다.

탈북민 3만 2천 명 시대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외치지 않는 교회가 별로 없다. 말로는 북을 통일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탈북민 사역을 구제사역의 한 분야쯤으로 여기는 교회도 많다. 그러나 탈북민 사역은 통일사역이며 북을 사역이다.

하나원 방문사역과 남북친구모임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통일을 성취해가는 현재진행형 통일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문의: 02-3463-9686

■ 부모·자녀 성장학교 ‘파워임팩트’ 간증



/ 정도준 성도(강남A공동체)

나와 아들의 변화와 성장

나는 주일마다 교회 계사판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가을에도 계사판을 살펴보다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파워임팩트’ 프로그램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 태영이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50대 후반이고 아들은 10대다. 나이 차이가 많아서 소통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느꼈다. 나는 아들을 잘 이해하고 싶었고 아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태영이도 나를 조금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에게 ‘파워임팩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자고 권했다.

토요일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와 태영이랑 같이 파워임팩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나는 아이를 많이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거나 놓친 부분이 많았다.

태영이는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 공부에 집중하기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학생이었다. 중학교 남학생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게임’이다. 태영이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었다. 그랬던 태영이가 파워임팩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모르는 사람과 소통도 잘하게 됐다.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어른을 대하는 태도도 공손해졌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면서도 공손하게 표현할 줄 아는 아이로 바뀌었다.

8주 과정을 마치고 1월 스리랑카 아웃리치에 다녀온 태영이는 훨씬 더 건강한 아이가 됐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됐다. 태영이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됐다. 스스로 주체적인 학습태도를 갖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 태영이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번 파워임팩트 4기에는 아들 스스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나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스태프로 참여하기로 했다. 더 많은 성도들이 파워임팩트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문의: 02-3215-3532

장로칼럼

연합 그리고 열매



이종길 장로
(가정사역공동체)

대전 온누리교회가 주관하고 서빙고, 양재, 수원 온누리교회가 연합해서 진행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가 3월 17일 시작해서 4월 8일 끝났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다. 이번 하가훈은 연합팀으로 이룬 큰 사역이었다. 연합사역에 대한 모델 된 계기이기도 하다.

이번 하가훈에서는 지원자 24가정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서빙고, 수원, 대전, 양지 등 캠퍼스별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번 하가훈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하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그동안 캠퍼스별로 진행되었던 하가훈을 작년년부터 선택과 집중을 위해 통합팀으로 운영했다. 처음에는 새로운 시도라서 염려가 됐지만 모든 훈련과 교육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지난 겨울방학 때 국내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 가정사역자들과 연합모임을 가진 적이 있다. 당시 대전 온누리교회 가정사역팀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사역자들의 모습이 마치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았다.

이번 하가훈 118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각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했다. 사역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4주 동안 하가훈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풍

성한 결실을 주셨다.

꿈꾸는 자는 이루는도다! 하나님께서 대전 하가훈팀에게 큰 꿈을 주셨다. 대전 하가훈팀의 목표는 중부권 이남 지역에서 가정사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과 길을 인도해주실 것을 신뢰한다. 또 남부권에서도 가정사역이 전파되고 확산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가훈 지원자와 많은 사역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대전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오셨고, 많은 목사님들도 오셨다. 각 캠퍼스의 많은 목사님들께서 연합하고 헌신해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 첫 주차 토요일에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러 오신 박대영 목사님부터 매주 먼 길을 함께 하시며 결혼갱신예배를 주관하신 윤석원 목사님, 자녀교육 강의를 맡으신 노희태 목사님, 주일예배를 통해 새신자 결신까지 인도해 주신 김대진 목사님, 양지 온누리교회를 소개해주시고, 하가훈팀을 격려해 주신 도육환 목사님, 큰 틀을 짜서 하가훈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시고, 수료식을 위해 끝까지 시간을 내주신 윤길중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전 기수 하가훈 사역자들도 수시로 방문해서 격려해 주셨다. 공동체 다락방장님들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면서 하가훈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셨다. 각 공동체 장로님들께서도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모든 분들의 헌신에 힘입어 이번 하가훈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수원 온누리교회 주관으로 '연합 하가훈 119기'가 새롭게 시작됐다. 양재 온누리교회 주관으로 연합 하가훈 120기도 개설할 예정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정이 더욱 성숙해지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문의: 010-6310-1785

권사칼럼

농어촌 선교와 사랑에 빠지다



모순자 권사
(양재 농어촌선교팀)

나는 10년 전 온누리교회에 왔다. 전에는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일들을 해왔다. 양재로 이사 와 보니 성남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다녔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온누리교회 수요일예배를 드리게 됐다.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었다. 교회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온누리교회에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마리아행전에도 참가했다. 특히 성경통독반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께서 7년 동안 훈련 받은 성도는 외부로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을 충분히 교육해서 외부로 내보낸다고 하셨다. 온누리교회는 다른 교회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6년 전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어느 날 예배시간에 농어촌선교 광고가 나왔다. 섬기고 싶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함께 예배드린 지체가 재정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농어촌선교팀에서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담당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열심히 따라다녔다.

농어촌교회를 방문하면 목사님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다. 그리고 농어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주신다.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중 하나다. 우리가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면 활짝 웃어주신다. 목사님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나도 행복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다. 그 목사님들도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모든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내가 더 늙기 전에 그분들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나는 농어촌선교팀을 섬기면서 힘들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오히려 나보다 농어촌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고생하신다. 그래서 농어촌교회를 탐방할 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농어촌교회 탐방을 가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도울 수 있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많은 농어촌교회 목사님들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정말 좋다.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농어촌선교팀을 섬기고 싶다. 농어촌선교팀이 앞으로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멋지게 감당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분들이 농어촌교회 탐방에 참석해서 농어촌 목회의 실상을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신앙에세이



조준목 목사
(길공동체)

요즘 여름사역을 준비하면서 문득 작년 아웃리치 때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해외 아웃리치를 은혜롭게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잠시 가족들과 만나고 그 다음 날 부지런히 국내 아웃리치를 갔다. 아웃리치팀은 나보다 먼저 아웃리치 장소에 가있었다. 아웃리치 장소는 지방의 작은 교회였는데 그것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섬겼다. 팀이 먼저 내려가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고 나는 저녁집회 설교가 약속되어 있었다. 청소년들을 만날 기대감에 열심히 운전해서 아웃리치 장소에 갔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웃리치팀원들과 청소년들이 막 저녁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더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아웃리치 팀원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몇 사람이 급한 직장일 때문에 함께 오지 못한 것이다.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측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우리가 아웃리치를 간 그 교회 청소년부 담당교역자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청소년들과 친밀함이 별로 없었다. 청소년들 역시 순모임이나 성경공부 등 신앙 활동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 아웃리치 프로그램 진행마저 어려웠으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라앉아 있는 아웃리치팀과 수련회 분위기가 나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집회 시작 전 중보기도를 했는데 다들 고개를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반전을 이루시기 시작했다. 팀원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고, 소리치고,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셨다. 그렇게 아웃리치팀에서부터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저녁집회가 시작되었다. 찬양인도자는 반응 없는 청소년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힘 있게 찬양을 이끌어 나갔다. 나는 메시지를 즐겁게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데 청소년들이 눈물 흘리며 은혜 받는 모습이 보였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지고 계셨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다.

집회 후 진행된 팀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무겁고 피곤했던 분위기가 경쾌하고 유쾌하게 변해있었다. 각자의 간증들을 나누면서 감사가 더욱 깊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귀한 간증 보따리를 들고 돌아왔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바울이 폭풍을 만나 떠밀려갔던 '몰타섬'에 대한 기록이 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며 뒹뒹 배가 선장과 선주의 잘못된 판단으로 태풍을 만나 몰타섬에 좌초되었다. 바울은 그곳에서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기도 했다. 예상하

지 못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몰타섬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수, 예측 못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좌초되고, 뱀에 물리고, 누명을 쓰는 모든 사건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섬에 복음이 뿜어나가게 되었다. 어려움이 더 큰 기쁨이 되었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장을 장식하게 되었다.

작년 국내 아웃리치는 나와 지체들에게 몰타섬이었다.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연속됐지만 주님이 이루시는 반전을 경험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몰타섬을 만날까?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자리, 의도하지 않은 자리, 누군가의 실수로 만들어진 곤란한 자리를 경험하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놀라운 반전을 찾게 된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

올해 있을 아웃리치 그리고 남은 2018년의 일상 속에서 그 멋진 반전을 경험하기를 기도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고난과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성육신하려고 나아갈 때 겪는 고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교회는 맨날 뭐 해라, 작정하라는 식으로 고난을 준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 샘솟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때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데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인이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기를 낳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산은 육체에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생명이 위험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쁩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분만실에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고통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장기를 이식해 줄 때도 몸은 고통스럽지만 얼마나 기쁠까요? 고난이 강한 만큼 기쁨이 강해집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영혼이 생명을 얻도록 해주면서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또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고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격려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 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3-4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정도로 그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 자라고, 고난 속에서 사랑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도 필그림교회는 초대교회와 함께 뉴저지에서 가장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필그림교회가 속한 노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안수까지 했습니다. 많은 한인 교회들이 그 때문에 갈등하고 노회를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필그림교회의 재산이 노회재산으로 천만 불 이상이 잡혀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노회를 탈퇴한다고 했는데도 노회가 놔주지 않았습니다. 법적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은 필그림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천만 불 가량의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나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작년 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천 여 명의 성도들이 동의해서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예배당을 포기하고 나온 선택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건물을 잃었지만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소중한 터전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라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많은 교회에게 도전을 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빌 1:29).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다준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유익을 나누고 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삶과 가정, 우리 민족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지구 반대편에서 강도 만난 수많은 난민과 전쟁고아들을 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을 때 수많은 나라의 원조를 통해 우리나라가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스도 고난의 유익을 나눠주려고 함께 고난을 자청한 이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그 이상이 또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것보다 이상이 또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안내합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기쁨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방황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양재 화재대피훈련 이렇게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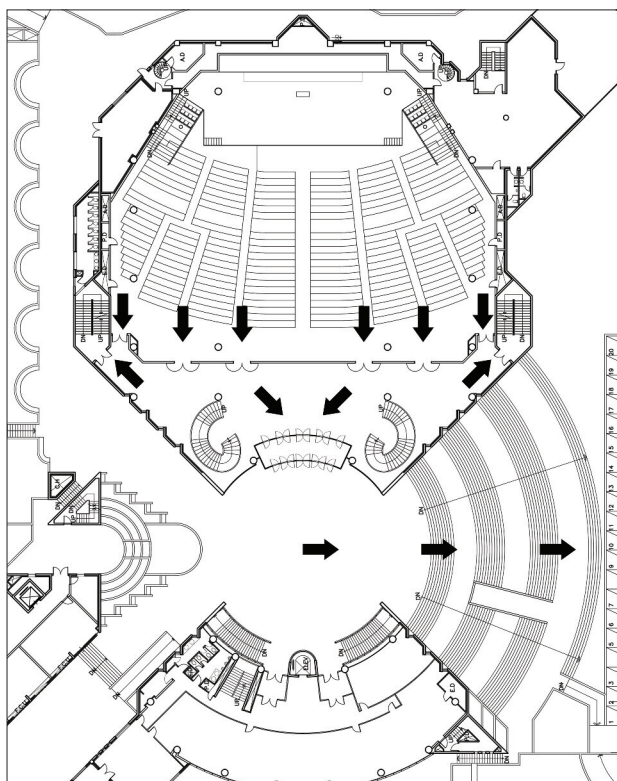
화재대피훈련 일시
5월 6일 2부 예배 후부터 3부 예배시작 전까지

- 화재대피훈련이 실시되는 장소는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입니다.
- 예배광고시간에 화재대피훈련 사전 설명을 듣고, 축도 후 훈련에 참여해 주십시오.
-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장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 대피장소는 양재 온누리교회 지상주차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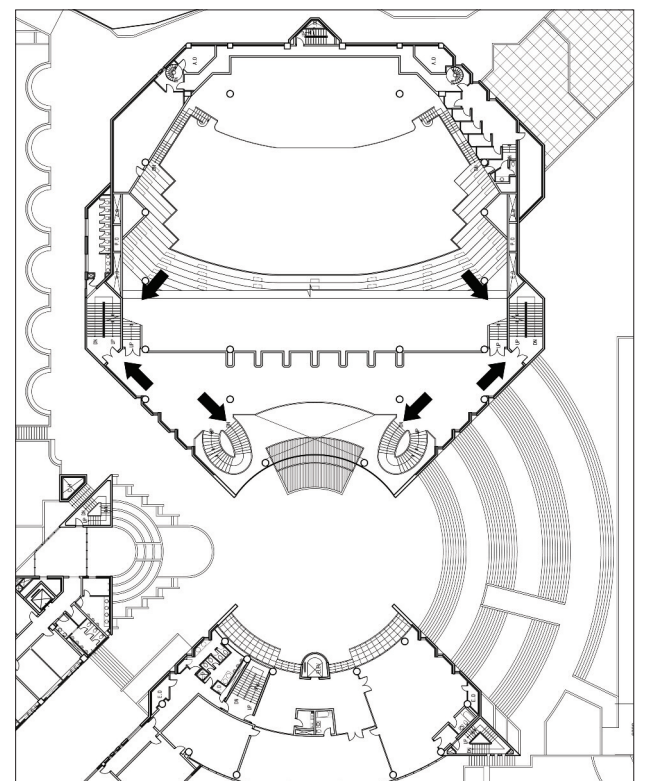
화재대피훈련 진행내용

1. 연막기로 만든 연기가 발생, 경보 방송
2. 경보 방송을 듣고 대피장소(지상주차장)로 대피
3. 119 소방관 출동해서 화재진압절차 훈련
4. 화재훈련 종료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1층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2층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년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파키스탄어 주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애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청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 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문의: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자)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세라핌단원 모집

오디션: 매 주일 오후 2시(자유곡1곡, 악보

지참)

장소: Act29홀(카페 내)

대상: 초등 2학년 이상

문의: 010-4775-2403

안산 온누리M센터 물품기증 요청

품목: 태권도복 30벌

(초등 20벌, 청소년, 성인용 10벌)

문의: 이경숙 전도사(010-5034-0092)

서빙고방송실 예배자막 담당자 모집

업무: 예배 영상중계 시 자막 제작, 송출

근무: 파트사역(주3일), 무기계약직

자격: 기독교인, 디자인(포토샵, 일러스트

경험자) 가능, GEN CG 프로그램 경

험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신앙고백서)

문의: 02-3215-3113. lewcam@onnuri.org

31기 이혼자행복학교

일시: 5월 28일~6월 23일 매주 토 오후 5시

~9시 30분

신청: 이혼위기 및 별거중인 남녀, 이혼한

남녀(자녀돌봄 초등 5학년까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CGNTV



바쁜 삶을 '일시정지' 하고 모바일에서 만나는 성경말씀

일상생활 곳곳에서 말씀이 필요한 순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따뜻한 말씀
'PAUSE (퍼즈)'

산상수훈 팔복(마 5:3-10)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고전 15:58)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요일 4:7-10)
자녀를 위한 축복(민 6:24-26)

'퍼즈'
다시보기



CGNTV Korea

CGNTV Korea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